

주민센터 어르신 몰려 아침부터 북적

“컴퓨터를 못하니깐, 몸이 아파도 어쩔 수 있나. 받으러 와야지-.”

정부의 국민지원금 오프라인(현장) 신청이 시작되면서 주민센터마다 신청자들이 북적였다. 특히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신청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렸고 예전과 달라진 사용처에 대한 문의도 빗발쳤다.

13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 행정복지센터는 몰려든 지원금 신청자들이 센터 2층의 접수대기실(30석)이 오전 9시 전부터 가득 찼다.

센터측은 이날 노인 신청자들이 몰릴 것에 대비, 오전부터 임시로 현장에 부스까지 마련하고 담당자를 배치해 안내·신청을 받았다.

이날 주민센터를 찾은 신청자 대부분은 인터넷·온라인 이용이 쉽지 않은 노인·취약계층 등 정보 소외계층이었다.

신분증을 꼭 쥐고 다른 한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주민센터를 찾은 박모(80) 할머니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나왔다”면서 “카드를 쥐서 받긴 했는데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첫주에는 요 일제를 도입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13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 표정

신청자 대부분이 정보 소외계층 예전과 달라진 사용처 문의 빗발 5부제 모른 채 왔다가 헛걸음도

일(월), 2·7이면 14일(화), 3·8이면 15일(수), 4·9면 16일(목), 5·0이면 17(금)일에 접수를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리는 주민들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일부 노인들은 “몸이 아픈데 또 언제 오냐”면서 “오늘 받아갈 수 없냐”고 역정을 내기도 했다.

양산동 주민센터에만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 까지 2시간 동안 193명이 몰리면서 현장 접수 좌석은 오전 내내 빈 자리가 없었다.

지역상생카드를 받은 김모(85)할아버지는 “아들이 주민센터가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왔다”면서 “이거 받아서 추석 명절때 손주들 과자 사줄 것”이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또 핸드폰을 분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젊은층이나 파산 등으로 신용카드로 은행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도 현장 접수를 위해 센터를 찾았다.

지역상생카드 사용처를 읽어본 뒤 사용할 데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지원금을 거주하는 자치구에 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도 전통시장·동네마트·미용실 등은 가능하지만 예전과 달리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형 온라인몰·홈쇼핑·대형 배달앱 등도 예전과 달리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 이 때문에 20대 젊은층 사이에서는 “PC방에서밖에 쓸 데가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현장접수 첫 날인 이날 오후 4시까지 광주시 5개 구 95개 주민센터에 서류를 낸 신청자만 2만 1071명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8838명이 남였고 서구 4802명, 남구 6417명, 광산구 621명, 동구 393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 11일까지 6일간 전국적으로 총 2886만 2000여명의 온라인 신청자에게 7조2155억원이 지급됐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부 5차 재난지원금 현장신청 첫날인 1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양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려는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 힘들게 버텨왔는데... 여수 어느 자영업자의 죽음

치킨→맥주→치킨집 변경에도 코로나 여파 나아지지 않는 삶 한쪽엔 국화꽃 한송이 덩그러니

13일 오후 찾아간 여수시 선원동 여천전남병원 장례식장 A(47)씨의 빈소에는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멈추질 않았다. 영정 속 A씨는 자신감 넘쳐 보이는 젊은 자영업자였다.

빈소에서 만난 친형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유서에 적혀 있지만 생활고가 원인은 아니다”면서 “최근 건강도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13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40분께 자신이 소중하게 운영해온 여수시 학동의 치킨집에서 발견됐다. 현장에서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발견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등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지인들이 기억하는 A씨는 ‘인사성 밝은 활동적 성격의 사람’이었다.

A씨 가게 주변에서 만난 한 상인은 “인상 좋고 인사도 먼저 건네는 친절해 사람”이라며 “11일까 지도 문을 열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다른 지인은 “활동적이라 평소엔 자전거와 배드민턴을 좋아했다”면서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지인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을 버텨내느라 힘들어했고 지난 주부터 얼굴빛이 좋지 않아 보였다고 기억했다.

그가 운영하던 치킨집에는 경영난으로 힘들어 했을 그의 고민이 엿보였다.

기자가 찾아간 A씨 가게는 한쪽 문이 열려있었다. 사고 당일까지 있었다는 소방당국의 ‘출입통제’ 테이프는 치워진 상태였고 입구에는 수십만원 상당의 상·하수도 사용자 청구서가 놓여있었다. 지난 4개월 간 청구 요금이었다.

A씨 가게 입구에 놓인 출입명부 속 방문자 기록 일지는 지난 9월 6일 이후로 비어있었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강제로 개방한 듯한 다른 쪽 출입구에는 누군가 두고간 국화꽃 한송이가 놓여있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여수시 학동에 치킨집을 열면서 왕성하게 일을 했다고 한다. 배달 뿐 아



지난 13일 극단적 선택을 한 A씨 가게 입구에 누군가 놓고간 국화꽃 한송이가 놓여 있다.

나라 음식점 내부에 테이블 10여개를 갖춘 규모라 장사도 잘됐다는 게 주변 상인들 전언이다. 하지만 손님이 많이 필요하고 손이 가는 일거리가 많은 탓에 A씨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하다 1년 만인 지난해 4월 맥주집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가 들이닥쳤고 한여름 말고는 손님도 많지 않았다. 결국 경협이 있던 치킨집으로 6개월만에 다시 바꿨다고 한다. 코로나가 장기화됐고 영업시간 제한 등이 이어지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사리 회복하기도 힘들었다. 코로나19로 가뜰이나 힘든 상황에서 동종 업종 간 경쟁도 심했다.

A씨 가게가 있는 동네 주변 300m 가량의 먹자골목에만 치킨집 11개가 있었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운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밤 10시면 문을 닫아야해 A씨 가게 뿐 아니라 일대 모든 치킨집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는 인구 대비 치킨집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인구 275명 당 치킨집 1곳이었다. 총 업체수로도 1023개 치킨집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도시다.

전국 자영업자들은 A씨의 소식을 듣고 SNS에 애환과 애도의 글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면서 생존 기반이 무너지는 자영업자들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린 한 자영업자는 “이번엔 치킨집 사장님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라고 썼고 다른 자영업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베르테르 효과는 일어나지 않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여수=글·사진 김민석 기자 mskim@

“4수원지 인근 습지보호구역 지정...무등산 난개발 막아야”

지역환경단체 강력 촉구

광주시의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광주일보 9월 6일 6면> 방침과 관련,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무등산 자락 수변 공간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하지 말고 인근 평두메습지까지 포함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녹색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환경단체가 포함된 ‘무등산국립공원 복원을 위

한 시민네트워크’는 13일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무등산 생태계를 위협하는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을 평두메습지를 포함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광주시는 무등산 주변의 과도한 개발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를 기억해야 한다”면서 “4수원지 보호구역해제는 무등산국립공원에 있는 공원마을지구를 비롯한 사유지에서의 개발 행위가 가능한 만큼 이후 끊임없는 개발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4수원지 상류에는 2020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현재 복원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인 평두메습지가 있다”면서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장기적으로 상류에 있는 평두메습지의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중요 습지이자 생태복원의 우수한 사례로 주목받는 평두메습지를 보전하고 무등산 난개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이자 맞은 광주 30대 숨겨 보건당국, 관련성 여부 조사

광주에서 30대 남성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숨겨 보건당국이 관련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13일 광주 광산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A(34)씨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뒤 건강 악화로 치료를 받다 접종 13일만에 숨졌다.

A씨는 지난달 30일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다음날 가슴 통증과 답답함,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며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임상검사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약 처방 후

귀가했다. A씨는 그러나 다음날에도 증상이 지속되자 종합병원을 다시 찾았고 이번엔 폐부종 소견에 따라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지난 7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상태가 더 악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에크모(체외산소공급장치)와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치료를 받다 지난 12일 숨졌다.

병원측은 A씨 사망 원인을 확장성 심근증으로 판단했다. 유가족은 경찰에 부검을 요청했고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A씨 사망의 인과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대지 515㎡(구 156형)
지하 1층, 지상 9층
46㎡(구 14형), 64호실
매매 - 협의
-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대지 582㎡(구 176형)
지하 1층, 지상 10층
49㎡(구 15형), 72호실
매매 - 협의

중개환영. 010-3605-5000

남구 덕남동 임야

- ▶ 661㎡(구. 200형), **지분 매매**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개발 호재 다**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매 - 6,000만원
문의. 010-3605-5000